2010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 언어 영역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1 | | | |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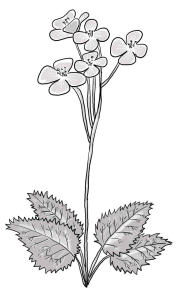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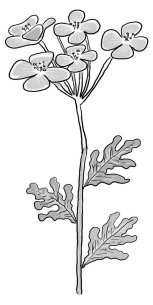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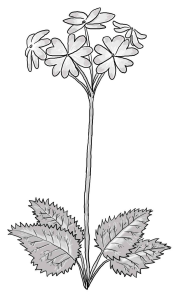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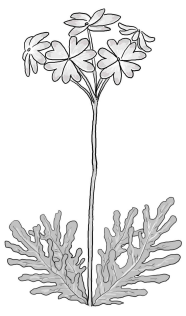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를 들은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군.
②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수록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해.
③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물건에 손대는 일은 없어야겠어.
④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는군.
⑤ 남의 실수를 감싸 주어야 내 실수도 용서 받을 수 있어.

*2.* (물음) 여학생이 보고 있는 꽃에 해당하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3.* (물음) 강연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② 우리나라에 내린 폭설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③ 지구 온난화의 진행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다.
④ 지구 온난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난히 도드라진다.
⑤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지구 온난화가 빨리 진행된다.

**[4 ~ 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양측에서 예상한 '대체휴무제' 실시의 결과를 바르게 묶은 것은?

| | 찬성 측 | 반대 측 |
|---|---|---|
| ① | 소비 지출 증가 | 소비 지출 감소 |
| ② | 생활의 질 향상 | 소비 지출 감소 |
| ③ | 생활의 질 향상 | 기업의 부담 증가 |
| ④ | 유급 휴가 증가 | 기업의 부담 증가 |
| ⑤ | 유급 휴가 증가 | 서비스 산업 침체 |

*5.* (물음)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② 어려운 내용을 친숙한 상황에 빗대어 제시하고 있다.
③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자들의 말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6.* '바람직한 경영'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으로부터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소비자를 고려해서 제품을 만든다.
② ㉡ : 양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인다.
③ ㉢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전문 기관의 조언을 받는다.
④ ㉣ : 소비자의 수요 규모를 예측하여 생산량을 결정한다.
⑤ ㉤ :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한다.

*7.* 지역 신문에 실을 도서관 관련 기사의 표제·부제를 정할 때,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보 기>

○ 비유를 활용한다.
○ 대구법을 사용한다.
○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① 주말마다 도서관은 몸살 중!
– 이용자 수 많고, 좌석 수 부족하고
② 책을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어요.
– 개방 시간과 대출 기간의 연장 필요
③ 외관은 알록달록, 내부는 얼룩덜룩
– 도서관 내부 시설의 개선 시급해
④ 얇은 동화책부터, 두꺼운 사전까지
– 모두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⑤ 나를 도와줄 사람, 도서관에는 없나요?
– 이용법이 어려워서 도우미의 손길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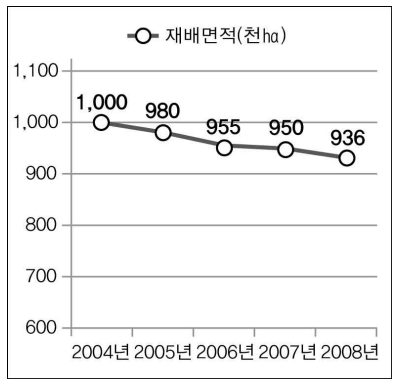
*8.* '쌀 소비 감소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이란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가) 전문가 인터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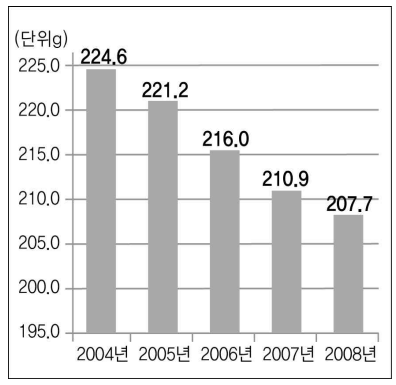
"쌀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30~40 %나 올랐는데, 쌀값은 10 % 가까이 하락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빵, 라면, 피자 등과 같은 밀가루 식품의 소비 증가와 관련이 깊습니다. 밀가루가 쌀을 대신하는 비율이 점점 커져 쌀값이 하락한 것입니다.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 밀가루 소비를 쌀 소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 통계 자료 [출처 : 통계청]**

○ 연도별 쌀 재배 면적




○ 1 인당 하루 쌀 소비량




**(다) 신문 기사 내용**

△△도에서 개발한 떡, 쌀 과자, 전통주 등의 쌀 가공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전통주의 경우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도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쌀 소비를 증가시켜 224억 원의 연간 이익을 창출했다.

| | 활용 자료 | 활용 방안 |
|---|---|---|
| ① | (가) | 쌀 소비 감소가 농민의 경제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
| ② | (나) |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
| ③ | (다) | 쌀 가공식품이 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들어 쌀 가공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④ | (가)+(나) | 쌀 소비 감소의 한 원인으로 밀가루 소비의 증가를 들며 밀가루 소비를 쌀 소비로 전환해 쌀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 ⑤ | (나)+(다) | 쌀 가공식품의 생산이 증대됨에 따라 쌀 재배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을 들어 쌀 재배 면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9.*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Ⅰ. **서론** :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의 필요성

Ⅱ. **본론**

1.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의 실태
   (1) 학생들의 무관심 ····· ㉠
   (2)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 미흡
   (3)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방해 ····· ㉡

2.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의 장애 요소
   (1)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
   (2)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함 부족
   (3) 교실 쓰레기 재활용의 중요성 ····· ㉢

3.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노력
   (1) ㉣
   (2)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함 확충

Ⅲ. **결론** :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의 한계 ····· ㉤

① ㉠ :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바꾼다.
② ㉡ : 상위 항목의 내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③ ㉢ : 논지 전개상 어색하므로, 'Ⅱ-3.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노력'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한다.
④ ㉣ : 'Ⅱ-2-(1)'을 고려하여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⑤ ㉤ : 논지를 강조하기 위해 '교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노력 촉구'로 바꾼다.

*10.* <보기>는 학급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릴 글의 초고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학급 회장으로 뽑힌 ○○○입니다. 회장이 되어 무척 기쁘기는 한데, 이런 중책을 ㉠ <u>맡는것이</u>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다들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반 친구들이 고쳐야 할 점은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끼리만 ㉡ <u>어울립니다</u>. 아직까지 우리 반 분위기가 서먹한 건 그 때문인 것 같아요. ㉢ <u>그렇지만</u> '새 친구 사귀기 운동'을 펼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 <u>선배들 얘기로는 고등학교에선 수학이 어려워진다는데 참 고민입니다.</u> 고등학교 때 친구는 평생을 간다니까, 다 함께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회장으로 뽑아준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 <u>빌어</u>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① ㉠은 띄어쓰기에 맞게 '맡는 것이'로 고쳐야겠어.
② ㉡은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어울리는 게 문제입니다'로 바꿔야겠어.
③ ㉢은 문맥에 어울리게 '그래서'로 바꿔야겠어.
④ ㉣은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⑤ ㉤은 잘못 사용한 어휘이므로 '빌려'로 고쳐야겠어.

*11.* 밑줄 친 '의'의 앞말과 뒷말의 의미 관계를 <u>잘못</u> 파악한 것은?

① 어머니<u>의</u> 신발이 많이 낡았다.
   [소유주와 소유물]
② 오늘 나<u>의</u> 짝은 선행상을 받았다.
   [속성과 대상]
③ 이 일은 선생님<u>의</u> 충고를 따라야겠다.
   [주체와 행위]
④ 졸업한 선배들에게 축하<u>의</u> 박수를 보내자.
   [목표와 수단]
⑤ 우리 국민<u>의</u> 절반이 축구 중계방송을 시청했다.
   [전체와 부분]

*12.*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발음이 바르게 된 것끼리 묶은 것은?

<보 기>

○ 음절의 끝소리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이어질 때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자음(대표음)으로만 소리 난다. 다만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가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고 뒤 음절의 첫소리가 된다.
   예 부엌 앞[부어갑], 부엌이[부어키]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뀐다.
   예 같이[가치], 굳이[구지]

| | 가마솥을 | 물받이 |
|---|---|---|
| ① | [가마소틀] | [물바지] |
| ② | [가마소슬] | [물바지] |
| ③ | [가마소츨] | [물바지] |
| ④ | [가마소틀] | [물바디] |
| ⑤ | [가마소츨] | [물바디] |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3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대문 맞은편 길가에 앉아서 방망이를 깎아 파는 노인이 있었다. 방망이를 한 벌 사 가지고 가려고 깎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값을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았다. 좀 싸게 해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방망이 하나 가지고 에누리하겠소? 비싸거든 다른 데 가 사우."

대단히 무뚝뚝한 노인이었다. 더 깎지도 못하고 잘 깎아나 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는 잠자코 열심히 깎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굼뜨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냥 늑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깎고 있다.

인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이다. 차 시간이 바쁘니 빨리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척 대꾸가 없다. 사실 차 시간이 빠듯해 왔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인제는 초조할 지경이다. 더 깎지 아니해도 좋으니 그만 달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 되나." 나도 기가 막혀서 "살 사람이 좋다는데 무얼 더 깎는다는 말이오. 노인장 외고집이시구먼. 차 시간이 없다니까." 노인은 퉁명스럽게 "다른 데 가서 사우, 난 안 팔겠소." 하고 내뱉는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없고, 차 시간은 어차피 틀린 것 같고 해서,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마음대로 깎아 보시오."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치면 되나." 좀 누그러진 말씨다. 이번에는 깎던 것을 숫제 무릎에다 놓고 태연스럽게 곰방대에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는가. 나도 고만 지쳐 버려 구경꾼이 되고 말았다. 얼마 후에 노인은 또 깎기 시작한다. 저러다가는 방망이는 다 깎아 없어질 것만 같았다. 또 얼마 후에 방망이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다 됐다고 내 준다. 사실 다 되기는 아까부터 다 돼 있던 방망이다.

차를 놓치고 다음 차로 가야 하는 나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 따위로 장사를 해 가지고 장사가 될 턱이 없다. 손님 본위가 아니고 제 본위다. 그래 가지고 값만 되게 부른다. 상도덕(商道德)도 모르고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노인이다.' 생각할수록 화증이 났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다보니 노인은 태연히 허리를 펴고 동대문 지붕 추녀를 바라보고 섰다. 그 때, 바라보고 섰는 옆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노인다워 보이고 부드러운 눈매와 흰 수염에 내 마음은 약간 누그러졌다. 노인에 대한 멸시와 증오도 감쇄(減殺)*된 셈이다.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는 이쁘게 깎았다고 야단이다.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의 것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아내의 설명을 들어보면 배가 너무 부르면 다듬다가 옷감을 치기를 잘하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며, 배가 너무 안 부르면 다듬잇살이 펴지지 않고 손에 헤먹기가* 쉽단다. 요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체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중략)

옛날 사람들은 흥정은 흥정이요 생계는 생계지만, 물건을 만드는 그 순간만은 오직 아름다운 물건을 만든다는 그것에만 열중했다. 그리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심혈을 기울여 공예 미술품을 만들어 냈다. 이 방망이도 그런 심정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 노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 "그 따위로 해서 무슨 장사를 해 먹는담." 하던 말은 "그런 노인이 나 같은 청년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물건이 탄생할 수 있담." 하는 말로 바뀌어졌다.

– 윤오영, 「방망이 깎던 노인」 –

* 감쇄(減殺) : 줄어 없어짐.
* 헤먹기가 : 꼭 맞지 않고 헐겁기가

(나)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新蓊濁酒如湩白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大碗麥飯高一尺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飯罷取耨登場立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雙肩漆澤翻日赤
응혜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呼邪作聲擧趾齊
삽시간에 보리 낟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須臾麥穗都狼藉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雜歌互答聲轉高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但見屋角紛飛麥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觀其氣色樂莫樂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了不以心爲形役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樂園樂郊不遠有
무엇 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 何苦去作風塵客

–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

(다)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턴고.
굽을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를쏘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원천석의 시조 –

* 세한고절(歲寒孤節) : 한 겨울 추위를 이겨 내는 높은 절개.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② 과거와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④ 불합리한 사회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지향이 나타나 있다.

**14.** (가)와 (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 | (가) | (나) |
|---|---|---|
| 대상 | 방망이를 깎는 노인 |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 |
| 화자의 깨달음 | ㄱ | ㄴ |

| ㄱ | ㄴ |
|---|---|
| ① 투철한 장인 정신 | 노동을 통한 보람과 즐거움 |
| ② 노동의 참된 가치 | 계층 갈등의 해결 원리 |
| ③ 의연한 삶의 태도 | 가난을 극복하는 지혜 |
| ④ 상도덕의 중요함 | 농촌 생활의 즐거움 |
| ⑤ 전통의 소중함 | 음악과 노동의 조화 |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5. (가)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상황 | '나'의 심리 |
|---|---|
| 여유를 부리며 방망이를 깎는 노인 | 갑갑하고 초조해짐 …… ⓐ |
| ⬇ | ⬇ |
| '나'의 재촉을 무시하는 노인 | 점점 기분이 나빠짐 …… ⓑ |
| ⬇ | ⬇ |
| 동대문 추녀를 바라보는 노인 | 노인에 대해 불쾌감이 줄어듦 …… ⓒ |
| ⬇ | ⬇ |
| 방망이에 대해 아내의 말을 들음 | 노인에게 동정심을 느낌 …… ⓓ |
| ⬇ | ⬇ |
| 노인을 대했던 나의 태도를 돌이켜 봄 | 노인에게 미안함을 느낌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대상을 묘사한 다음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⑤ 실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사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의 작가 원천석은 고려 말의 학자이자 문인이다.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하자, 고려의 신하들은 그에게 협력하는 사람과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이 상황에서 작가는 새 왕조에 반대하여 치악산에 은거하였다. 조선 건국 후 태종이 즉위하여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고 그를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다)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① 초장의 '눈'은 새로운 왕조에 협력을 강요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② 초장의 '휘어진'은 이성계 세력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고 은거한 작가의 삶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군.
③ 중장의 '절개'는 고려의 신하로서 새 왕조에 반대하고 끝내 벼슬을 거절한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군.
④ 중장의 '눈 속에 푸를쏘냐'는 새 왕조에 협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⑤ 종장의 '너'는 초장의 '대'와 동일한 대상으로,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보여준 작가의 태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18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친구가 울고 있으면 '왜 울까?'라는 의문을 품고 그 원인을 찾게 되는데, 이처럼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것을 '귀인(歸因)'이라 한다. 귀인은 타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행동의 원인은 행동을 한 당사자의 성격, 태도, 능력 등과 같은 내적인 것과 운, 압력, 날씨 등과 같은 외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다. 행동 원인을 내적인 것에서 찾는 것을 '내부 귀인'이라 하고, 외적인 것에서 찾는 것을 '외부 귀인'이라 한다.

사람들은 귀인하는 과정에서 독특성, 일치성, 일관성 등을 주요 판단 요소로 고려한다. 먼저 독특성은 어떤 행동이 특정한 대상에 한해서만 일어났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가령 영희가 다른 책을 볼 때는 울지 ㉠ 않는데 특정한 책을 볼 때만 운다면 울음이 그 책 때문이라고 외부 귀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치성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식으로 행동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만일 영희가 강연을 듣던 도중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강연자의 어떤 말에 웃었다면, 그 말이 영희 웃음의 원인이라고 외부 귀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관성은 원인이 있을 때마다 그 행동이 일어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영희가 특정한 산에 갈 때마다 경치를 보고 탄성을 지른다면 그 산의 경치가 탄성의 원인이라고 외부 귀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귀인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자존심이나 인상 등에 영향을 받아 독특성, 일치성, 일관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귀인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를 '귀인 오류'라고 한다. 귀인 오류는 사실을 왜곡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다르게 귀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 귀인을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을 하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내부 귀인을 하곤 한다. 이는 귀인 오류가 자존심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귀인 오류는 타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상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가령 인상이 나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도 외부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책임이라며 내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귀인은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을 때 자신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보상 때문에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대로 보상보다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두 사람 중 나중에 그 일을 또 하게 될 때, 좋아하며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로 후자이다. 이는 성공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보다 내부 귀인을 하는 것이 능동적인 태도를 더 잘 기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귀인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한다면 삶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8.*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귀인을 할 때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② 사람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편향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귀인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④ 타인에 대한 인상은 논리적인 귀인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⑤ 외부 귀인보다 내부 귀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19.*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수진** : 아빠, 제가 평균 90점을 넘으면 선물 사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저 평균 90점 넘었어요.

**아빠** : 우와, ㉮ 우리 수진이, 다른 사람들과 약속할 때에는 시험을 못 보더니 아빠랑 약속만 하면 시험을 잘 보는구나. ㉯ 90점 넘은 것이 벌써 세 번째인가?

**엄마** : 그런데 ㉰ 수진이가 공부를 즐기려는 마음이 없다 보니 공부할 때마다 툭 하면 짜증내요. ㉱ 옆집 은수는, 가서 보면 매번 즐거운 표정으로 공부하던데. 그걸 보면 은수는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진이도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수진** : 치……. 그나저나, 아빠, 저 선물 사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90점 넘으면 꼭 선물 사 주세요.

**엄마** : ㉯ 성적이 오른 게 아빠와의 약속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해. 매번 선물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려는 자세를 가져 봐.

① ㉮에서 아빠는 '독특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진이의 성적이 오른 것에 대해 귀인했다고 볼 수 있어.
② ㉯에서 아빠는 '일치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진이의 성적이 오른 것에 대해 귀인했다고 볼 수 있어.
③ ㉰에서 엄마는 수진이가 공부할 때 자주 짜증내는 원인을 수진이의 내적 특성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어.
④ ㉱에서 엄마는 '일관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은수가 공부를 잘 하는 것에 대해 귀인했다고 볼 수 있어.
⑤ ㉯에서 엄마는 수진이가 성적이 오른 원인을 자신의 내적 특성에서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어.

*20.* 위 글을 참조해 <보기>의 속담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글 잘 못 쓰는 사람은 붓 타박을 하고 농사지을 줄 모르는 사람은 밭 타박을 한다.

① 외부 귀인을 할 때 행동의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② 행동을 한 당사자가 처한 환경을 고려해 외부 귀인해야 한다.
③ 내부 귀인을 해야 할 때 외부 귀인을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④ 내부 귀인에만 의존해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⑤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의 장점을 모두 취해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1.* ㉠의 '-는데'와 쓰임이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철수는 아침은 안 먹는데 저녁은 꼭 먹는다.
②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데 우산 하나씩 사자.
③ 지금 백화점에 가는데 부탁할 것이 있으면 해라.
④ 거실에서 소설책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영희가 찾아왔어.
⑤ 지난주에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로 30여 명이 다쳤다.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5호에서 불의의 방문객을 맞은 것은 10시 반쯤이었다. 의외로 많은 조객에 305호 식구들은 당황했고, 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낯이 익은 사람들인 것을 알아보고는 ㉠ 가슴 뭉클한 고마움을 느꼈다.

"어머님, 그만 고정하세요.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노인네는 애써서 울음을 추슬렀다.

"밤중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들을……."

노인네는 손수건을 입으로 가져가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누추하지만 마루로 좀 올라오시지요."

광대뼈가 유난히 두드러져 보이는 피곤한 모습의 집주인인 아들이 자리를 권했다.

현관에 빠듯하게 들어서 있던 네 남자가 마루로 올라갔고 뒤에 서 있던 세 여자가 현관으로 들어섰다.

"복중에 상을 당하셔서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통장 되는 사람입니다."

㉡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주인에게 조의를 표했다.

방문객은 모두 일곱 사람이었다.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은 아래층 205호, 위층 405호, 그리고 옆집인 306호의 부부들이었다.

"제가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통장은 또박또박 말을 시작했다. ㉢ 사람으로 가득 찬 것과는 반대로 실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러니까 큰소리로 우는 건 삼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매몰차다 싶은 통장의 말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건 아들이 아니라 계속 느껴 울고 있던 노인네였다.

"거 무슨 흉한 말씀이오!"

노인네는 가당찮다는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들은 노인네의 서슬과는 반대로 멍한 눈길을 건너편 벽에다 보내고 있었다.

"곡이 없으면 망자가 가는 험한 길을 닦을 수가 없는 게요."

노인네는 언제 울었느냐 싶게 눈을 똑바로 뜨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어머닌 좀 가만계세요."

아들은 만사가 귀찮다는 몸짓으로 노인네를 제지했다.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들 오셨나요?"

아들이 서운한 빛을 역연히 드러내며 물었다.

"예, 여기가 뚝뚝 떨어져 사는 단독 주택이 아니고 서로 위아래, 양옆으로 붙어 살아야 하는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통장은 내친걸음이라 싶었던지 장례일 단축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있었다.

"안 돼. 그 무슨 벼락맞을 소리야! 그건 안 돼!"

통장의 말을 가로막으며 노인네가 소리쳤다.

"글쎄, 어머닌 좀 가만히 계시란 말예요."

아들이 역정을 냈다.

"여긴 아파틉니다. 넓지도 않은 13평짜리예요. 거기다가 여름이고, 모두 가난한 사람만 모여 사는 곳이라 그런지 쓰레기도 제대로 안 쳐가 파리가 얼마나 들끓습니까. 내 말을 야속하다고 생각진 마십시오. 벽 하나를 사이에 놓고 위아래, 양옆으로 사람들이 사는 아파틉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떨구어버렸다. 자신에게로 쏟아지고 있는 ㉣남녀 열네 개의 눈동자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듯한 몸짓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노인네는 마구 구겨 쥔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느껴 울고 있었다.

안 돼, 그건 안 돼. 사흘도 짧은데 그 무슨 흉악한 소리냐. 안 되고 말고, 그건 안 돼. 노인네는 새롭게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부르짖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돌아들 가시지요."

**[중간 줄거리]** 그날 밤 305호에서 '딱, 따악—딱' 하는 소리가 잠시 들리고, 그 섬뜩한 소리에 두려움을 느낀 이웃 사람들은 밤새 잠을 못 이룬다.

날이 훤히 밝아오고, 6시쯤이 되었을까. 몸집이 크게 느껴지는 찻소리가 붕붕 울려오고, 계단에 부산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준수네, 영주네, 그리고 옆집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현관 가까이에 영구차가 관이 들어갈 뒷문을 아가리처럼 벌린 채 발동을 걸고 있었고, 관을 옮기느라고 힘을 모으고 있는 장의사 사람들의 힘쓰는 소리가 계단을 타 내리고 있었다.

㉤광목으로 감싼 관이 현관에 불쑥 나타나더니만 이내 차로 밀려 들어갔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몰라보게 변해버린 노인네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랐다. 쇠잔한 어깨가 들먹이는 것으로 보아 우는 것이 분명한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노인네는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듯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의차가 가솔린 냄새를 남긴 채 아파트를 떠나갔다.

"어젯밤 그 소리가 관에 못 치는 소리였었군."

누군가가 말했고, 모두는 허망한 안도의 숨을 내쉬며 흩어져 갔다.

[A] 차가 아파트촌을 벗어나자 노인네는 입에서 수건을 떼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여보, 날 버리고 혼자만 가면 어떡해요. 이런 세상에 날 버리고 가면 난 누굴 믿고 살아요. 나를 데리고 가요, 여보. 나도 함께 가요, 여보오……."

– 조정래, 「외면하는 벽」 –

* 가정의례준칙 : 1973년에, 가정의례에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국가가 법률에 의해 정한 규칙.

*2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사건의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고 있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③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④ 인물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대화를 활용하고 있다.
⑤ 이야기의 비극성을 강화하기 위해 풍자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23.* <보기>와 관련지어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근대화의 상징인 아파트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아파트는 주민들끼리 교감을 나눌 기회를 줄이는 폐쇄적인 구조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생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었고, 정(情)을 바탕으로 한 **이웃사촌이라는 전통적인 관계**마저 무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아파트는 혼례나 장례 등 **우리의 전통 의례와는 잘 맞지 않는 공간**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과 전통적 삶의 방식 사이에서 잦은 충돌을 경험하면서 **혼란과 고통**을 겪곤 하였다.

① 아파트 주민들이 305호를 찾아온 것은 '자신들의 사생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행동이다.
② 305호 사람들과 아파트 주민들 사이를 '이웃사촌이라는 전통적인 관계'로 볼 수는 없다.
③ 아파트 주민들이 305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아파트가 '우리의 전통 의례와는 잘 맞지 않는 공간'임을 드러낸다.
④ '새로운 삶의 방식'은 통장이 말하는 '가정의례준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305호 사람들이 새벽에 아파트를 떠난 것은 '혼란과 고통'에 맞서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손님들이 방문한 의도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② ㉡ : 초상집인 305호의 상황에 맞춰 격식을 차리고 있다.
③ ㉢ : 손님들이 초상집의 비통한 분위기에 숙연해져 있다.
④ ㉣ : 아들은 주민들에게서 무언의 압력을 느끼고 있다.
⑤ ㉤ : 아파트 주민들의 의도대로 일이 마무리되고 있다.

*25.* [A]에 드러난 노인의 심리 및 태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사별(死別)한 남편을 애절하게 부르며 비통해하고 있군.
② 각박한 세태(世態)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③ 인생의 덧없음을 언급하며 자신의 지난 삶을 부정하고 있군.
④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군.
⑤ 아파트촌을 벗어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북받치고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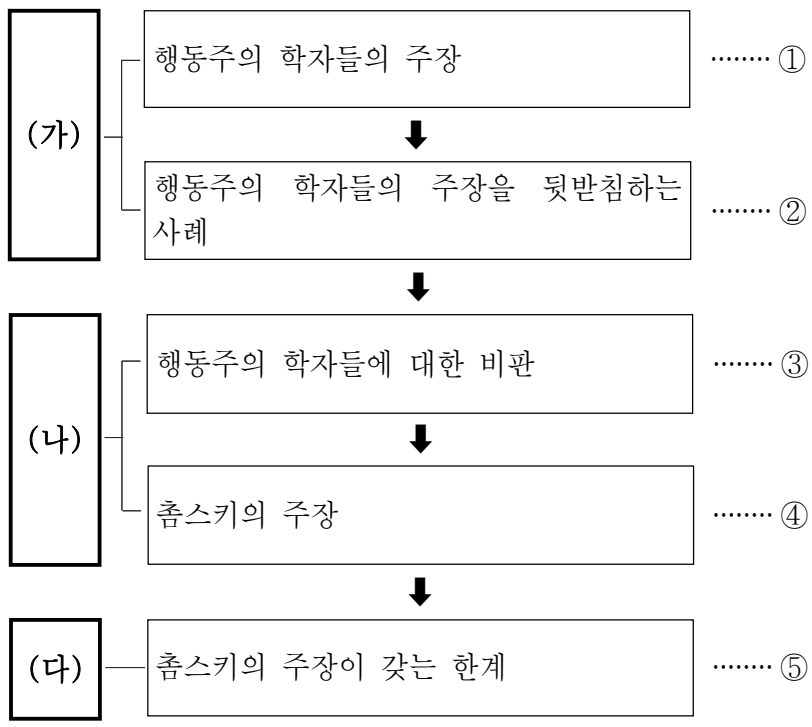
**[26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이들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 걸까? 이 물음에 대해 ㉠ <u>행동주의 학자</u>들은 아이들이 다른 행동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모방과 학습을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의 언어 습득은 '자극-반응-강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를 보고 엄마가 '빠이빠이'라고 말하면(자극), 아이는 엄마의 말을 모방하여 '빠이빠이'라고 말하고(반응), 이에 대해 부모는 칭찬이나 물적 보상(강화) 등으로 아이가 그 행동을 다시 하도록 격려하게 된다.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말을 배워간다. 즉 행동주의 학자들은 후천적인 경험이나 학습을 언어 습득의 요인으로 본다.

**(나)** 그러나 이러한 행동주의 학자들의 주장은 아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을 후천적인 요인으로만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미국의 언어학자 ㉡ <u>촘스키</u>는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새로운 문장을 끊임없이 생성해 낸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행동주의 학자들을 비판한다. 그는 아이들이 의식적인 노력이나 훈련 없이도 모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이유가 태어나면서부터 두뇌 속에 '언어습득장치(LAD)'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이들이 언어를 접하게 되면 이 장치가 작동하여 유한한 문법 규칙으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언어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필요한 영양과 조건이 주어지면 팔다리가 성장하다가 일정 시기에 이르면 성장이 멈추는 것처럼, 촘스키는 언어 능력 또한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성장해 가다가 이른바 '한계 시기', 즉 사춘기에 접어드는 13세 무렵에 이르면 성장을 멈춘다고 보았다.

**(다)** 이러한 촘스키의 주장은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언어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행동주의 학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복잡한 언어 습득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26.* 다음은 위 글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197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생후 18개월부터 약 14세 때까지 방에 감금된 채 고립되어 살아 온 '지니'라는 소녀가 발견되었다. 지니는 갇혀 지내는 동안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어 언어를 접할 수 없었다. 발견 당시 지니는 '엄마', '지니', '미안해' 등 겨우 20개의 단어만 이해했다. 지니는 발견된 후 집중적인 언어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① ㉠의 견해에 따르면 '지니'는 감금 기간에 모방의 경험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겠군.
② ㉠의 견해에 따르면 '지니'의 사례는 아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③ ㉡의 견해에 따르면 '지니'는 '언어습득장치(LAD)'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로군.
④ ㉡의 견해에 따르면 '지니'의 사례는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이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성장을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⑤ ㉠, ㉡의 견해에 따르면 '지니'의 사례는 언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언어 습득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군.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와 지구 주위에 나타나는 자석으로서의 성질을 '지구 자기'라 하고, 지구 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지구 자기장'이라 한다. 많은 지질학자들은 '다이나모 이론'으로 지구 자기장의 생성을 설명한다. 지구는 중심에서부터 보면 내핵, 외핵, 맨틀, 그리고 가장 바깥층인 지각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다이나모 이론에 따르면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외핵에는 많은 양의 철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데, 외핵의 끊임없는 대류* 활동으로 이온이 움직여 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가 지구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기력이 지난 수 세기 동안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이를 근거로 지금의 추세라면 언젠가는 지구 자기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예측한다.

만약 지구 자기장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된다면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 지구 자기장은 방향을 찾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물들에게 꼭 필요하며,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해 물질로부터 생명체를 지켜 주기 때문이다.

[A] 과학자들은 먼 거리를 오가며 편지를 전달해 주던 비둘기가 어떻게 방향을 찾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비둘기가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여 방향을 찾도록 해 준다고 생각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를 해부한 결과 머릿속에서 자석의 역할을 하는 물질을 발견하였다. 또한 비둘기 몸에 다른 자석을 붙여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면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철새나 고래 등 장거리 이동을 하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슷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를 통해 체내에 자석과 같은 물질을 갖고 있는 많은 생물들이 지구 자기장에 반응하여 방향을 찾거나 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구 자기장이 사라진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태양에서 뿜어내는 고에너지 입자에 생명체들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이다. 태양은 지구에 꼭 필요한 빛과 열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체에 해로운 고에너지 입자를 뿜어낸다. 고에너지 입자가 태양으로부터 날아와 지구에 도달하면, ㉡ 지구 자기장에 의해 만들어진 [보호막]이 태양의 빛과 열은 통과시키고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만약 이 보호막이 사라져 고에너지 입자가 생명체의 피부에 그대로 와 닿는다면 체내 염색체에 이상을 일으키고, 암을 비롯한 갖가지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구 자기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느낄 수는 없지만, 많은 생물들은 이미 지구 자기장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 이온 : 전기적 성질을 띤 원자, 혹은 원자의 집단.
* 대류 : 기체나 액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

*28.* 위 글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보 기>

가. 지구 자기장의 역할
나. 지구 자기장의 생성 원리
다. 지구 자기장이 흐르는 방향
라. 지구 자기력의 지역별 격차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⑤ 다, 라

*29.* 과학자들이 ㉠과 같은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A]에 제시되었다고 할 때, 다음 중 [A]의 내용과 관계 없는 것은?

현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탐구할 문제를 인식한다. ····· ①
⬇
문제와 관련된 학설이 있는지 탐색한다. ····· ②
⬇
문제에 대해 가설을 설정한다. ····· ③
⬇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 ④
⬇
검증된 가설을 일반화한다. ····· ⑤

*30.* ㉡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보호막]의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운전자가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안전띠
② 어항 속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산소 발생기
③ 적군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얼굴에 바르는 위장 크림
④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엑스레이 투시기
⑤ 필요한 물질은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물질은 걸러 내는 여과 장치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1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 없이도 살 사람'들만 모여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가 법 없이 살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강제적인 규칙을 정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강제성을 갖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이다. 하지만 복잡한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법률을 만들려면 법은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에 ⓑ 적용하는 과정은 이른바 '법률적 삼단논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률적 삼단논법'이란 추상적인 법 규정은 대전제로, 구체적인 사건은 소전제로 놓고, 법 규정이 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의 노트북 컴퓨터를 B가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다 발각되어 A가 B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하자. ㉠ 검사는 이 사건이 어떤 법 규정에 ⓒ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법정에서 B의 행위가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규정에 해당되므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 B의 변호사는 B가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간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려고 했던 것이므로, 검사가 내세운 형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사와는 다른 주장을 한다. 그러면 법관은 양쪽의 주장을 참고하여 B의 행위가 과연 검사가 내세운 형법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법관은 그에 맞는 결론, 즉 유죄 판결을 내린다. 이와 같이 검사, 변호사, 법관은 모두 '어떤 사건이 어느 법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다룬다.

그런데, 많은 훈련을 거친 법률가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적당한 법 규정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규정의 수가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기존의 법 규정도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운 법 규정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 규정이 여러 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만일 이와 같이 어떤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형법에서는, 법률에 미리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어떠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법 규정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관은 법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함부로 다른 형법 규정을 가져다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다.

반면, 기본적으로 ⓓ 대등한 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재판에서는 법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판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사건과 관련된 일반 원칙을 찾아내서 손해와 이익을 공평하게 ⓔ 조정하려고 노력한다. 즉, 법 규정 찾기에 실패해도 관습법이나 건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하다면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이다.

* 형사재판 :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다루는 재판.
* 민사재판 : 개인 사이의 경제적·신분적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

*31.* 위 글을 읽고 알게 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형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법이다.
② 동일한 사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법 규정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③ 많은 훈련을 거친 법률가들도 때로는 법 규정 찾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④ 민사재판에서는 관습법이나 건전한 상식도 판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⑤ 형사재판에서는 적당한 법 규정이 없으면 법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판결을 미룬다.

*32.* ㉠과 ㉡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만 법률적 삼단논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② ㉡만 법률적 삼단논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③ ㉠과 ㉡이 대전제를 서로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④ ㉠과 ㉡이 소전제를 서로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⑤ ㉠이 자신이 세운 대전제를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33.*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갑'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을'로부터 '병'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병'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갑'과 '을' 모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법률이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을'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갑'이 이를 이용한 행위는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① '갑'은 도덕적인 비난을 면할 수 있겠군.
② '을'은 법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겠군.
③ '병'이 '갑'에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겠군.
④ 대법원은 '갑'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세운 대전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군.
⑤ 앞으로 '갑'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법 규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군.

34. 위 글로 보아 [죄형법정주의]에 담긴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② 명백한 범죄행위는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③ 법을 적용할 때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④ 법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다.
⑤ 누구든지 타인의 행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35. ⓐ ~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 분쟁(紛爭) : 말썽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
② ⓑ 적용(適用) :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
③ ⓒ 해당(該當) :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음.
④ ⓓ 대등(對等) : 서로 견주어 높고 낮음이나 낫고 못함이 없이 비슷함.
⑤ ⓔ 조정(調停) :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림.

**[36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듯 경계하고 흥부와 같이 칠산 조기 껍질로 부러진 다리를 싸고 청울치로 찬찬 동여 놓되 이놈은 워낙 무지한 놈이라, 제비 다리를 동이되 곱게 못 동이고 마치 오강(五江) 사공 닻줄 감듯, 육모얼레에 연줄 감듯, 각전 시정 통비단 감듯 칭칭 동여 제비 집에 얹어 두었더니 그 제비 간신히 살아나서 구월 구일을 당하매 모든 제비 들어갈 제 다리 부러진 저 제비 놀부 집을 떠나간다. 반공중에 높이 떠서 가노라 하직할새,

"원수 같은 놀부야, 명년 삼월에 나와서 다리 분지른 은혜를 갚으리니 조이조이 잘 있거라. 지지워 지지."

라 울고 돌아가 제비왕께 현신하니 이때 제비왕이 각처 제비를 점고*할새 다리 저는 제비를 보고,

"너는 어찌하여 다리를 저는고?"

그 제비 아뢰되,

"거년(去年)에 폐하께서 웬 박씨를 내보내사 흥부가 부자가 된 연고로 그 형 놀부 놈이 신(臣)을 생으로 잡아 여차여차히 하와 생병신이 되었사오니 이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제비왕이 듣고 대로하여 가로되,

"㉠ 이놈이 불의의 재물이 많아 전답과 전곡이 진진하되 착한 동생을 구제치 아니하니 이는 오륜에 벗어난 놈으로 또한 심사가 불량하니 그저 두지 못할지라. 네 원수를 갚아 주리니 이 박씨를 갖다 주라."

(중략)

박을 앞에 놓고 톱을 대어 탈새,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기어 주소 톱질이야."

슬근슬근 타다가 반쯤 켜고 ㉡ 놀부가 우선 궁금증이 나서 박 속을 기웃이 들여다보니 그 속이 아주 싯누런 것이 온통 황금 같거늘 놀부 보다가,

"수 났구나, 그럼 그렇지. 마누라, 자네도 이 박 속을 들여다보소. 저 누런 것이 온통 황금덩일세."

놀부 아내 하는 말이,

"누른 것을 보니 금인가 싶으오마는 그 속에서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니 그것이 웬일이오?"

놀부 이른 말이,

"자네도 미혹한 말 조금 하소. 박이 더 익고 덜 익은 것이 있으니 이 박은 아주 농익은 고로 구린 냄새가 나는 줄을 모른단 말인가? 어서 바삐 타고 보세."

슬근슬근 칠팔 분이나 타다가 놀부 부부 궁금증이 또 나서 톱을 멈추고 양편에 마주 앉아 들여다보니 별안간 박 속에서 모진 바람이 쏘아 나오며 벼락같은 소리가 나더니 똥줄기가 무자위 줄기처럼 내쏘는지라. 놀부 부부가 똥벼락을 맞고 나동그라지며 똥줄기는 천군만마가 달려나오는 듯 태산을 밀치고 바다를 메울 듯 삽시간에 놀부 집 안팎채에 가득하니 ㉢ 놀부 부부 온몸이 황금덩이가 되어 달아나 멀찌기서 바라보니 온 집안이 똥에 묻혔는지라. 만일 왕십리 거름장사가 알게 되면 한밑천 잡게 되었더라. 놀부 놈이 기막혀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이 노릇을 어찌하잔 말이오. 재물을 얻으려다가 수다히 있는 재물 다 탕진하고 나중은 똥으로 하여 의복 한 가지 없게 되니 어린 자식들과 장장 하일(夏日)에 무엇 먹고 살아나며 동지섣달 설한풍에 무엇 입고 사잔 말이오. 애고 애고, 설운지고."

이처럼 땅을 두드리며 통곡할 제 앞뒷집에 사는 양반 제 집까지 똥이 밀려가서 그득한지라. ㉣ 그 양반들이 공론하고 고두쇠를 벼락같이 부르더니 놀부 놈을 즉각 잡아오라 분부한다. 고두쇠 놈이 워낙 놀부 놈을 미워하는 터이라 조총(鳥銃)같이 달려가서 놀부 놈의 덜미를 퍽퍽 짚어 풍우같이 몰아다가 생원님 앞에 꿇린대, 생원님이 호령하되,

"이놈 놀부야, 듣거라. 네가 본디 부모에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고 일가에 불화하고 다만 재물만 아니, 도적보다 더 심할뿐더러 무슨 몹쓸 짓을 하다가 동내(洞內) 양반이 귀가 시끄럽게 네 집에 환란이 첩출(疊出)하여 패가망신을 하니 그는 네 죄에 싼 일이어니와 네 죄로 하여 동내 양반 이 똥으로 못살게 되니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으리오. 네 죄는 종속소기(從俗所期)*려니와 우선 양반 댁에 쌓인 똥을 해 지기 전에 다 쳐내되 만일 지체를 할 지경이면 죽고 남지 못하리라."

하고 일변 고두쇠를 호령하여 놀부를 결박하여 절굿공이 찜질을 하며 기왓장에 꿇어앉히고 똥 쳐내기 전은 끌러 놓지 말라 하니, 놀부 놈 가뜩 망극 중 기가 막히어 아무 말도 못하다가 기왓장에 꿇어앉은 채 제 계집을 시켜 ㉤ 돈 오백 냥을 갔다 놓고 빨리 삯군을 놓아 왕십리, 안감내, 이태원, 둔짐이, 청파, 칠패 여러 곳에 있는 거름 장사들을 있는 대로 불러다가 삯을 후히 주고 똥을 쳐낸 후에야 놀부가 겨우 놓여 와서 부부 서로 붙들고 갈 바이 없어 통곡하더라.

– 작자 미상, 「흥부전」 –

* 점고 : 사람이나 동물의 수를 셈.
* 종속소기(從俗所期) : 풍속에 따라 처리함.

*36.* 위 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갈등 양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야.
② 인물의 탐욕스러운 면모를 해학적인 말과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야.
③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강한 의지가 부각되어 있는 작품이야.
④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는 인물을 통해 인간과 운명의 대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야.
⑤ 복잡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인간이 겪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세심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야.

*37.* 위 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흥부전」 배경 설화의 유형**

| | | |
|---|---|---|
| ㉮ | 선악형제담 | 선량한 인물과 악한 인물이 서로 형제 관계로 등장하는 이야기 |
| ㉯ | 과장담 | 사건 전개에 필요한 어떤 부분을 크게 부풀려 만드는 이야기 |
| ㉰ | 모방담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이야기 |
| ㉱ | 무한재보담 | 항아리 같은 물건에서 재물이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 |
| ㉲ | 동물보은담 | 동물이 사람에게 입은 은혜를 갚는 이야기 |

① ㉮ : 착한 흥부가 동생으로, 악한 놀부가 형으로 등장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② ㉯ : 놀부가 몰락해 가는 장면을 비현실적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 : 양반이 제비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놀부를 징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 : 놀부가 탄 박에서 재물 대신 똥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내용으로 변형되어 있다.
⑤ ㉲ : 제비가 원수를 갚기 위해 놀부에게 응징의 박씨를 물어다 주는 것으로 변형되어 있다.

*38.* 위 글에 이어질 결말을 <A>나 <B>라고 할 때, 각각의 결말로 얻을 수 있는 효과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A> 놀부는 모든 재산을 잃지만 흥부의 도움을 받아 화목하게 살아간다.**

○ 효과
* 인간의 선한 본성을 강조한다. ····· ㄱ
* 물질이 행복의 필수 조건임을 부각한다. ····· ㄴ
*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 ㄷ

**<B> 놀부는 모든 재산을 잃고 떠돌면서 힘들게 살아간다.**

○ 효과
* 개성적인 삶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 a
*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교훈을 강조한다. ····· b

① ㄱ, a ② ㄱ, b ③ ㄴ, a
④ ㄴ, b ⑤ ㄷ, a

*39.* ㉠~㉤의 상황을 한자성어를 활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놀부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인물인데 제비왕은 그러한 면모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있다.
② ㉡ : 놀부는 박을 타서 덕망과 부귀영화를 얻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③ ㉢ : 놀부는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다.
④ ㉣ : 놀부는 집을 망치고 또 양반들에게 혼쭐나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처지에 빠져 있다.
⑤ ㉤ : 놀부는 주변 사람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도와주어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가 세탁기 버튼을 눌러 놓고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자동 세탁기의 등장 때문이다. 전자동 세탁기는 세탁조 안에 탈수조가 있으며 탈수조 바닥에는 물과 빨랫감을 회전시키는 세탁판이 있다. 그리고 세탁조 밑에 클러치가 있는데, 클러치는 모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모터의 힘을 세탁판이나 탈수조에 전달한다. 마이크로컴퓨터는 이 장치들을 제어하여 빨래를 하게 한다. 그렇다면 빨래로부터 주부들의 ㉠<u>손을 놓게</u> 한 전자동 세탁기는 어떻게 빨래를 하는가?

[A] 전자동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물이 들어오기 전에 세탁판이 2~3회 공회전을 한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세탁판이 공회전하면 빨랫감의 무게로 인해 회전에 저항하는 힘이 생긴다. 마이크로컴퓨터는 이 힘을 측정하여 빨랫감의 양을 감지하고 빨래에 필요한 물의 양을 판단한다. 공회전이 끝나면 소량의 물이 세탁조로 들어가고 다시 세탁판이 회전한다. 이때 마이크로컴퓨터는 빨랫감에 물이 흡수되는 정도를 측정해 빨랫감이 어떤 소재인가를 판단하여 빨래 시간을 결정한다. 빨래 시간이 결정되면 세탁조에 물이 채워진다. 마이크로컴퓨터는 채워진 물의 투과도를 인식하여 빨랫감의 더러운 정도를 판단한 후 빨래 시간을 조정한다.

빨래 시간의 조정이 끝나면 본격적인 세탁이 시작된다. 먼저 세탁판이 회전하면서 강한 물살을 일으킨다. 이 때 발생하는 원심력, 그리고 물살과 빨랫감이 부딪치며 만들어 내는 마찰력이 빨랫감의 때를 뺀다. 세탁이 끝나면 세탁조에 연결되어 있는 배수구로 물을 내보낸 후, 세탁조에 물을 채워 빨랫감을 헹구고 다시 배수를 한다. 헹굼과 배수는 마이크로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이 끝나면 클러치는 세탁판에 전달되던 모터의 힘을 탈수조에 전달한다. 탈수조는 모터의 힘을 받아 회전하면서 원심력을 만들고 그 힘으로 빨랫감의 탈수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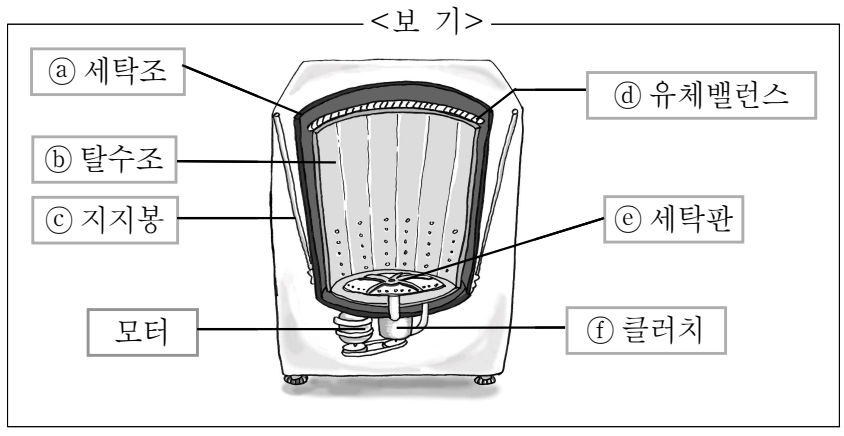
탈수조가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고 전자동 세탁기는 심하게 흔들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유체밸런스와 네 개의 지지봉이다. 유체밸런스는 탈수조 윗면에 링처럼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이 안에는 소금물이 들어 있다. 탈수조의 빨랫감이 한쪽으로 몰려서 탈수조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반대 방향으로 유체밸런스의 소금물이 흘러 탈수조의 균형을 잡는다. 이러한 원리로 유체밸런스는 균형을 잃기 쉬운 탈수조를 안정적으로 회전하도록 하여 소음을 감소시킨다. 지지봉은 세탁조를 움직이지 않게 지탱하면서 탈수조의 회전으로 인한 세탁조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여 진동과 소음을 줄인다.

*40.*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세탁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② 세탁기를 구성하는 장치들의 기능을 소개한다.
③ 세탁기가 작동하는 과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
④ 세탁기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⑤ 세탁기와 관련된 일상의 상황을 들어 글을 시작한다.

*41.*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보고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① 세탁과 헹굼을 할 때에는 ⓐ에 물이 채워져 있다.
② ⓒ는 ⓑ가 회전할 때 생기는 진동과 소음을 줄여준다.
③ ⓓ는 세탁 과정에서 ⓐ가 안정적으로 회전하도록 한다.
④ ⓔ가 돌면 세탁을 하는 데 필요한 원심력과 마찰력이 생긴다.
⑤ ⓕ는 모터의 힘을 빨래 단계에 따라 ⓑ나 ⓔ에 전달한다.

*42.* [A]를 아래의 단계로 나타낼 때 마이크로컴퓨터가 수행하는 역할로 적절한 것은?

| | 세탁판 공회전 | 소량의 물을 넣고 세탁판 회전 | 세탁조에 급수 |
|---|---|---|---|
| ① | 빨랫감의 양을 감지하여 물의 양 판단 | 빨랫감의 더러운 정도를 파악하여 빨래 시간 조정 | 빨랫감의 소재를 판단하여 빨래 시간 결정 |
| ② | 빨랫감의 양을 감지하여 물의 양 판단 | 빨랫감의 소재를 판단하여 빨래 시간 결정 | 빨랫감의 더러운 정도를 파악하여 빨래 시간 조정 |
| ③ | 빨랫감의 소재를 판단하여 빨래 시간 결정 | 빨랫감의 더러운 정도를 파악하여 빨래 시간 조정 | 빨랫감의 양을 감지하여 물의 양 판단 |
| ④ | 빨랫감의 소재를 판단하여 빨래 시간 결정 | 빨랫감의 양을 감지하여 물의 양 판단 | 빨랫감의 더러운 정도를 파악하여 빨래 시간 조정 |
| ⑤ | 빨랫감의 더러운 정도를 파악하여 빨래 시간 조정 | 빨랫감의 소재를 판단하여 빨래 시간 결정 | 빨랫감의 양을 감지하여 물의 양 판단 |

*43.* <보기>를 참조할 때, ㉠과 유사한 예로 볼 수 <u>없는</u> 것은?

<보 기>

㉠은 '손(을)'과 '놓다'가 결합하여, 각 단어가 지닌 원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 즉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의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① 어제부터 모두들 그 식당에 <u>발을 끊었다</u>.
②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에 <u>귀를 기울였다</u>.
③ 결국은 결승전에서 우리 편이 <u>무릎을 꿇었다</u>.
④ 조용히 <u>눈을 감고</u>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다.
⑤ 장에 가신 아버지가 오시기를 <u>목을 빼고</u> 기다렸다.

**[44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藥)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u>어린 짐승</u>,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熱)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 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血液)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

(나) 바닷물이 넘쳐서 개울을 타고 올라와서 삼대 울타리 틈으로 새어 옥수수밭 속을 지나서 마당에 흥건히 고이는 날이 우리 외할머니네 집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날 나는 망둥이 새우 새끼를 거기서 찾노라고 이빨 속까지 너무나 기쁜 ㉡종달새 새끼 소리가 다 되어 알발*로 낄낄거리며 쫓아다녔습니다만, 항시 누에가 실을 뽑듯이 나만 보면 옛날이야기만 무진장 하시던 외할머니는, 이때에는 웬일인지 한 마디도 말을 않고 벌써 많이 늙은 얼굴이 엷은 노을빛처럼 불그레해져 바다 쪽만 멍하니 넘어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왜 그러시는지 나는 아직 미처 몰랐습니다만, 그분이 돌아가신 인제는 그 이유를 간신히 알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 다니시던 어부(漁夫)로, 내가 생겨나기 전 어느 해 겨울의 모진 바람에 어느 바다에선지 휘말려 빠져 버리곤 영영 돌아오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라 하니, 아마 외할머니는 그 남편의 바닷물이 자기집 마당에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도 못 하고 얼굴만 붉어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 서정주, 「해일(海溢)」 –

* 알발 : 맨발.

(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회초리를 들고서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 옛날에 옛날에 —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내가 여읜 동심(童心)의 옛 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 직한 동물원의 오후.

– 이한직, 「낙타」 –

*44.*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②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③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삼아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④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의인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45.* (가)를 영상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전체적인 구성 방향**
– 과거 장면과 현재 장면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 과거 장면**
– 앓고 있는 어린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안타까운 시선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 ①
– 산수유 열매의 붉은색이 눈의 흰색과 뚜렷이 대비되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 ②

*** 장면 전환**
– 눈을 회상의 매개체로 하여 과거 장면과 현재 장면을 연결한다. ····· ③

*** 현재 장면**
–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지는 도시의 거리 모습을 배경으로 설정한다. ····· ④
– 주인공의 감정과 어울리는 경쾌한 배경 음악을 활용한다. ····· ⑤

*46.* (다)를 읽으면서 떠오른 의문에 대해 답을 찾아본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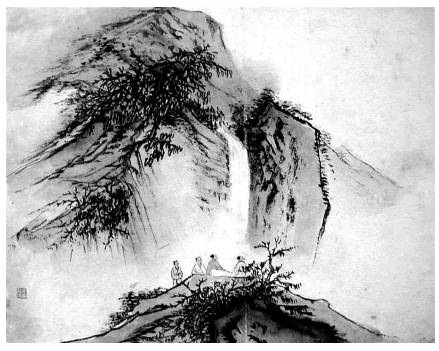
| | 떠오른 의문 | 의문에 대한 답 |
|---|---|---|
| ① | 화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 동물원 잔디밭에서 낙타를 보고 있군. |
| ② | '눈을 감으면'은 어떤 의미를 지닌 행동일까? |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 ③ | 화자는 왜 선생님과 낙타를 연관 짓고 있을까? | 둘 사이에 '늙은 외모'라는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겠군. |
| ④ |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 자신에게 가해진 삶의 무게를 떠올린다는 뜻이겠군. |
| ⑤ | '여읜 동심'이란 표현에는 화자의 어떤 심정이 담겨 있을까? |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담겨 있겠군. |

4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명랑한 이미지이다.
② ㉠과 ㉡은 모두 창백한 이미지이다.
③ ㉠은 거친 이미지이고, ㉡은 왜소한 이미지이다.
④ ㉠은 순수한 이미지이고, ㉡은 투박한 이미지이다.
⑤ ㉠은 연약한 이미지이고, ㉡은 천진난만한 이미지이다.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양화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여백의 미를 빼놓을 수 없다. 여백의 미를 살리지 않은 그림은 동양화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백은 동양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 여백은 다양하게 표현된다. 화면 한쪽을 넓게 비워 놓는 큰 여백이 있는가 하면, 화면의 형체 사이사이에 좁게 비워 놓는 작은 여백도 있다. 또한 여백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빈 공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물이나 하늘, 안개나 구름과 같은 어떤 실체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빽빽함에 대비되는 성김으로, 드러남에 대비되는 감춤으로 여백 표현을 대신하기도 한다.



여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선 후기의 화가 김홍도의 '관폭도(觀瀑圖)'를 통해 살펴보자. 그림을 보면 선비들이 모여 있는 곳과 산(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석구석이 비어 있다. 심지어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조차도 형체를 그리는 대신에 여백으로 표현하였다. 이렇듯 화면의 여러 부분을 비워 둠으로써 여백은 화면에 여유와 편안함을 주고 이로 인해 감상자는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 동양화 속의 일부 경물들이 세밀하고 빽빽하게 그려져 있더라도 그리 복잡하거나 산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여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수화에서의 여백은 세밀하게 표현된 경물들을 산만하지 않게 잘 정리해 주어 화면 전체에 안정감을 제공한다.

여백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여백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자세히 그린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표현해 주고 암시해 준다. 그림에서 선비들이 바라보는 곳에 주목해 보자. 폭포 건너편에 있는 선비들은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작가는 선비들이 바라보는 대상을 여백으로 처리하였다. 선비들이 바라보는 대상은 그림 속 공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림 바깥에 저 멀리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작품의 오른쪽에 봉우리를 그렸다면 선비들이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단정 짓게 되지만, 여백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에 나무, 집, 바위 등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 여백은 일종의 적극적 표현이다.

여백은 화면에 여유와 안정감을 주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백이 지닌 이러한 효과들로 동양화의 감상자는 운치와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여백은 다 그리고 난 나머지로서의 여백이 아니라, 저마다 역할이 있는 의도적인 표현이다. '동양화의 멋은 여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여백은 동양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 방법이다.

48.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동양화의 여백의 특징과 역할
② 여백이 지닌 의미가 변해온 과정
③ 동양화에서 여백을 사용하게 된 기원
④ 동양화에서 여백이 나타나는 사상적 배경
⑤ 여백을 바라보는 동양과 서양의 관점 차이

49.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조각은 다른 미술 갈래보다 공간을 중시한다. 조각에서 공간은 작품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작용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조각가들은 형상 사이사이의 공간까지 단순히 '빈 곳'이 아니라 '네거티브 볼륨'이라고 해서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 위쪽의 작품을 보면 조각가가 작품을 하나의 덩어리로만 표현하지 않고 네거티브 볼륨을 작품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삼아 작품의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관폭도'와 '누워 있는 여인'은 모두 '빽빽함과 성김'의 대비를 통해 형상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군.
② '관폭도'와 '누워 있는 여인'은 모두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현실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군.
③ '관폭도'와 '누워 있는 여인'은 모두 작품 감상 과정에서 빈 공간을 작품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주목해야 하는군.
④ '관폭도'와 달리, '누워 있는 여인'은 대상과 빈 공간의 조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군.
⑤ '관폭도'와 달리, '누워 있는 여인'은 인위적인 조작을 최소화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경지를 표현하고 있군.

50. 글쓴이가 ㉠과 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① 경물에 담긴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 주기 때문에
② 작품 속 경물들을 산만하지 않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③ 화면에 표현된 것 이외의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④ 경물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작가의 예술적 능력을 보여 주기 때문에
⑤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강조해 주기 때문에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